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반만년민족사에 그 이름도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탄생 11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진함없고 더욱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우리러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 홀들을 찾으신 원수님께서서와 녀사께서는 이 땅우에 이민위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동서고금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 기적의 력사를 창조하시어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분투함으로써

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내각성원들, 근로

단체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당과 인민이 부여한 무거운 사명과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시위참가자들은 백두에서 창조된 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일심단결의 정치사상

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열정속에 광장을 활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축광장에 또다시 러져오른 환호성은 백두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조국과 혁명을 필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승리의 천만리, 영광

의 천만리를 여세게 걸어갈 공화국인민의 신념의 메아리로 4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공화국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